

국가인재원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, 국정철학 특별강연

-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등 각 분과위원장,
9월 6일까지 -

1.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원장 오동호, 이하 국가인재원)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방향을 공직사회에 빠르게 공유·확산하기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하였다.
2.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만들어 갈 예비 사무관 363명(신임 관리자과정)을 대상으로, 9월 6일까지 총 7차례 열렸다.
 - 프로그램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‘국민의 나라, 정의로운 대한민국’이며,
 -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5개 분과 위원장의 특별 강연과 교육생과 자유로운 대화로,
 -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과제에 담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 등을 공유하게 된다.

일자	주제	참여자
① 8.8(화)	국민이 주인인 정부	박범계 (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 분과위원장)
② 8.21(월)	평화와 번영의 한반도	이수훈 (" 외교안보분과위원장)
③ 8.23(수)	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	김연명 (" 사회분과위원장)
④ 8.23(수)	문재인 정부의 의의와 과제	김진표 (전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)

⑤ 9.4(월)	더불어 잘사는 경제	이한주 (" 경제1분과위원장)
⑥ 9.4(월)	고르게 발전하는 지역	이개호 (" 경제2분과위원장)
⑦ 9.6(수)	핵심 국정과제의 이해	최병환 (국무조정실 국무1차장)

3. 김진표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“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표출된 문제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해 ‘국정운영 5개년 계획’을 마련했다.”며 “국정과제의 실행주체인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,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 서 줄 것”을 당부했다.
4. 오동호 원장은 “문제인 정부에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”며 “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국정철학 교육을 강화해 공직사회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〈제62기 신입관리자 공채과정〉

- ❖ 교육목표 : 올바른 공직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- ❖ 교육기간 : 5.8.~9.8.(18주)
- ❖ 교육대상 : 5급 공채 합격자로서 신규임용 예정자 363명
 - ※ 남성229명(63%), 여성134명(37%) / 평균연령 28.7세(최연소23세, 최고령 42세)